

이남주

중국정치 변화와 남북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공회대에서 중국정치 관련 강의를 해왔고, 현재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맡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으로 시민사회 평화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강유덕

통상정책, 경제통합 및 유럽경제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 유럽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and Trade 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자문활동을 해왔고, 현재 국제학술지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의 공동 편집인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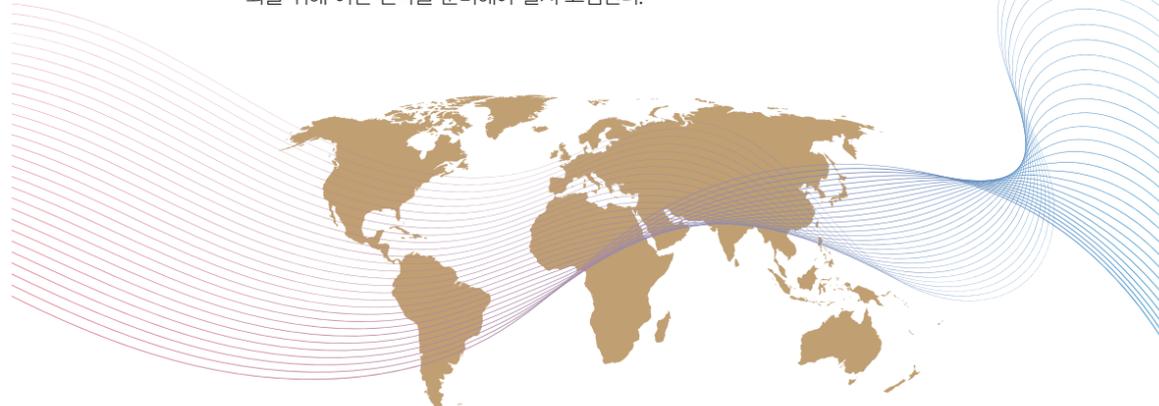
윤성욱

유럽통합과 갈등 극복, EU 대외정책, 국제금융 및 국제통상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영국 브리스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와 동아대학교 등에서 재직하였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0년 한반도평화친선대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창의적 해결 방안과 남북 간 갈등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질서의 대전환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갈등과 위기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7개의 제안

인류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우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오래도록 유지되어 왔던 자유주의 정치경제질서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책은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며,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기획에서 출발했다. 이 책의 공저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흐름을 정리하고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지 고심한다.



외교안보와 경제통상을 포함해 한국의 대외전략이 전통적인 틀에 머물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스스로를 종속변수로 놓았던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을 담아낸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값 17,000원
ISBN 979-11-5706-206-5 0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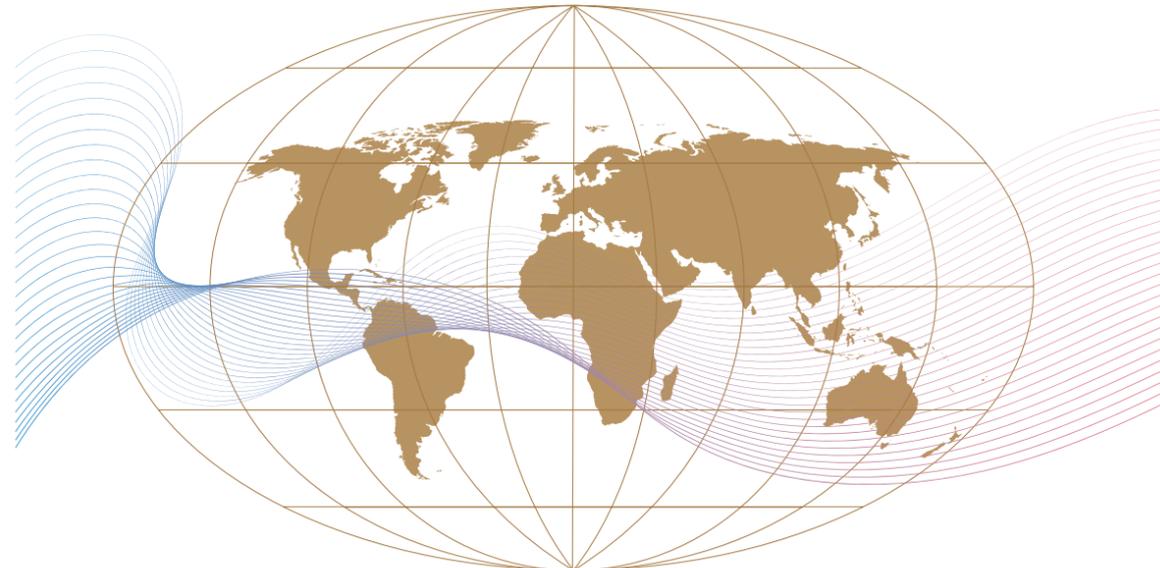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

한홍열, 최우선, 이정철
이남주, 강유덕, 윤성욱 지음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



대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한홍열, 최우선, 이정철, 이남주, 강유덕, 윤성욱



한홍열

국제통상, 산업 및 무역정책, 남북한 경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자문활동을 했고,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 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최우선

국제안보, 미중관계, 미국 외교정책, 북한·아시아 안보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저지주립 라마포칼리지 조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국립외교원 교수 겸 안보통일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정철

남북관계, 북한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을 거쳐 국회, 행정부, 청와대 등 여러 기관에서 남북관계와 북한문제 등의 정책자문 활동을 맡았다. 현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독 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